

기술개발·재무전략·마케팅·판로개척까지

광주상의 경영자문 서비스 지역중소기업 애로 해결사

대한상의 자문단 활용 맞춤형 멘토링 자문 '호응'

고속화전장치를 제작하는 광주 평동공단의 E사는 최근 개발한 연료절감기술을 차량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광주상공회의소의 경영자문서비스를 신청했다. 자문위원의 도움으로 이 회사는 자동차 전문 연구기관 및 업체와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E사 관계자는 “해당분야 기술에 관한 전문기를 쉽게 만나기 어려웠는데 자문위원이 직접 연구를 해 적합한 전문가와 기관을 연결시켜줬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 중소기업의 현장에 해소와 취약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중인 ‘찾아가는 경영자문서비스’의 기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경영자문서비스는 2011

년부터 광주상공회의소가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출신의 전문경영인으로 구성된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문단을 활용, 지역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 무료 경영자문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올해는 지난 6일 4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R&D, 마케팅·판로개척, 경영전략, 인사·노무, 품질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문이 실시됐는데,

자문 회망기업의 대로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적합한 자문위원을 매칭시키는 맞춤형 멘토링 자문이 제공돼 기업으로부터 ‘기대이상’이라는 호평을 얻고 있다.

실제 터키 지역 등에 건설 중장비 및 부품을 수출하는 K사는 남미와 동남아 등지로 수출국가를 확대하기 위해 자문을 신청했으며 자문위원의 도움으로 국내 최대 건설 중장비 제조업체

체와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공장자동화 설비를 생산하는 S사는 설립 초기보다 회사규모와 인원이 커지면서 조직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중 경영자문단이 경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인사·노무, 재무관리 등 폭넓은 분야의 자문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찾아가는 경영자문서비스는 대기업 출신 경영인이 지역 기업 CEO 및 멘토·멘티 관계를 맺고 풍부한 현장 경험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전수할 뿐만 아니라 자문위원이 가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하며 “인력, 기술, 마케팅 등 취약한 부분의 어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 기업인들이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경영자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광주상공회의소 기획진흥부(062-350-3862)로 문의하면 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가능한 FTA 활용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사전검증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원산지 사전검증 신청은 업체는 원산지 사전검증 신청서(광주세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를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연말까지 원산지 사전검증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광주세관 FTA계(062-975-8056).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세관 FTA 수출품 원산지 검증 지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14일 FTA 활용 수출기업의 원산지 검증 부담 완화를 위해 원산지 사전검증 서비스를 실시해 원산지 사전검증과 사후검증 상담을 포함하는 원산지 검증 Total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FTA 체결국에 수출 증가에 따른 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검증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17%가 원산지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우리기업의 검증 대비 인식이 낮아 원산지검증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본부세관은 지역내 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원산지 확인자료 제출이



장성 나노산단 산업용지 66필지 분양

장성지역에 조성되는 첫 일반산업단지인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이 본격 시작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광주연구개발특구는 최근 산업용지 분양공고를 내고 본격 선분양에 나섰다. 이번에

분양하는 규모는 산업시설용지 66필지(38만2978㎡)로 입주자격은 IT(정보통신), BT(생명과학), NT(나노기술), ET(환경기술) 등 첨단산업 및 기타제조업이며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분양가격은 ㎡당 20만3000원이며

대금납부는 계약금 10% 및 6개월마다 중도·잔금 90%를 분할납부하면 된다. ㎡당 분양가는 광주첨단2단계(28만6000원), 진곡일반산업단지(26만5000원)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오는 2015년까지 장성군 진원면과

남면 일원에 90만2000㎡ 규모로 조성되는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는 호남고속도로, 광산IC, 장성터널고속도로, 북광주IC, 국도 1, 13, 24호선 등이 가로, 세로로 연결돼 뛰어난 교통·물류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자세한 분양공고내용 및 신청절차,

유의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x.or.kr)이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를 참조하면 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 핀X

신제품 11억원
59만원

M.H.타사

13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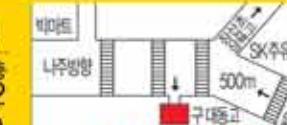
브랜드
동급제품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검색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무디스 “공기업·가계 부채 증가, 한국 신용등급 발목”

“차입금 많은 기업들 신용등급 하향조정 많을 것”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4일 국내 공기업 및 가계부채의 증가가 한국 정부신용등급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톱 번 무디스 부사장은 이날 무디스와 계열사 한국신용평가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한 ‘제11회 연례 콘퍼런스’에서 글로벌·국내 시장이 한국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대규모로 부자가 이뤄졌고 세금이 충분하게 조정되지 않은 점 때문에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난 상태”라면서 “한국의 신용등급은 이 같은 우발체부 요소

가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정부신용등급이 앞으로 1~2년 안에 상향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번 부사장은 “한국은 현재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 범위 중 하단에 있다”며 “1~2년 안에 등급 변동 가능성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신용등급에 있어 가장 큰 도전과제가 공공부문 부채의 급증이므로 이 문제가 제대로 관리된다면 “한국의 정부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제약하는 조건이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기업들의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추후 상향 조정되는 건수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또 다른 연사 크리스박 무디스부사장은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이 우호적인 거시경제환경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적 추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일부 민간기업은 차입금 비율이 높아 신용등급 하향 건수가 상향 건수보다 많을 것이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PB고객 투자상품 설명회
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은 창립 45주년을 기념해 14일 오후 힐리 디아인 광주호텔에서 광주은행 대표고객 100여 명을 초청, PB고객 투자상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투자상품 설명회는 ‘2014 국내외 경제전망 및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펼쳐져 지역 자산가들의 자산 설계에 도움을 줬다. <광주은행 제공>

10월 주택거래량 9만건

9월보다 59%나 늘어

지난달 주택거래량이 2006년 이후 10월 거래량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거래 건수가 총 9만281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35.9%, 전월대비 50.1% 각각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2006년 실거래가를 조사한 이후 역대 10월 거래량 중 가장 많은 것이다. 최근 주택거래량은 6월 말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 이후 8월까지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8·28대책 등 의 영향으로 9월 이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양도세·한시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혜택 등이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이 서둘러 구매대열에 동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KISTI 박영서 원장 래광



한국과학기술 정 보 연 구 원 (KISTI) 박영서 원장이 15일 과학기술정보협의회(ASTI) 기업

체 지원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

박 원장은 광주지역 기업체를 방문, 현장의 요구사항을 청취한 뒤 슈퍼컴 M&S, R&D 기획, 기술시장 경쟁구도 분석 등 기술 및 경영에 관한 다양한 지원을 ‘1사1연구원 지식멘토링 사업’을 통해 펼칠 예정이다.

한편, 광양경찰청은 미빈영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상임위에 예결 위원회를 직접 방문,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국고 주가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양만권경제청 내년 국비 488억 확보 올보다 67% 늘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14일 2014년도 정부예산안에 올해보다 196억원이 증액된 488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확보된 국비는 산업통상자원부 9건 307억원, 국토교통부 6건 178억원, 환경부 1건 3억원 등 총 16건 488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67% 늘었다.

2014년 확보된 국비사업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GFEZ) 핵심사업

으로 추진중인 ▲해룡산단 진입도로 개설 111억원, 화양 간선도로 개설 41억원 등 계속사업 10건 440억원과 ▲세종일반산업단 진입도로 및 윤촌제2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19억원 등이다.

광양경찰청 관계자는 “신규사업만 6건 48억원을 확보하는 등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업을 제외하고 2014년 GFEZ가 요구한 전 사업이 반영돼 그 어느 해보다도 산단개발이 활기를

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SOC 및 산업분야 기반시설사업의 예산감소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얻어낸 성과”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경찰청은 미빈영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상임위에 예결 위원회를 직접 방문,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국고 주가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1사1연구원 지식멘토링 사업은 중소기업을 지속성장시킬 수 있는 지식생태계 프로그램으로, 박 원장이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자 세운 경영지원책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럽평견적은 놓지 않습니다.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